

북·러 밀착과 해양·수산 분야 합의

윤인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mouthpiece@kmi.re.kr

I. 들어가며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방문하기 직전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이후 북·러 밀착의 기초와 핵심 내용을 밝혔다.¹⁾ 밀착 관계의 핵심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것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결제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²⁾ 다시 말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북·러 간 연대하여 유엔 무대에서 공동노선과 견해를 고수함으로써, 다극화된 세계 질서 수립을 방해하는 서방 세계와 대립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에는 공동으로 반대하고 인도주의 협조, 과학적 활동 활성화, 관광·문화 등 각종 교류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경제 활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북·러 간 무역액 규모가 미미하므로 북·러 무역협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 루블화 결제 시스템을 통한 금융 경제 공동체 형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³⁾

이러한 북·러 밀착 기초는 이미 2024년 4월 30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될 때 예고된 바 있다. 러시아는 매년 갱신하는 패널 임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북제재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일몰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⁴⁾ 대다수 안보리

1) 「노동신문」,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0년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 로씨야연방 대통령 웨.푸틴」, 2024. 6. 18.

2) 현승수, 「푸틴의 평양 방문과 러북 관계 전망」, 『온라인시리즈』, CO24-42, 2024. 6. 24, pp.4~5.

3) 위의 글, p.5.

4) 이상근,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의 의미와 파급영향」, 『이슈브리프』, 제531호, 2024. 3. 29.

이사국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전문가 패널을 포기하고 대북제재 유지를 선택했다. 그 결과, 2024년 5월 1일부터 전문가 패널의 대북제재 모니터링과 연 2회 보고 활동은 중단되었다. 이에 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대체할 다국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⁵⁾

II. 북·러 조약 체결과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합의

2024년 6월 19일에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도 그 합의를 충분히 해석해 내려면 이러한 흐름에서 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이 조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이 한국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⁶⁾ 및 러시아와 ‘한 전호’⁷⁾에 있다는 인식하에, 일방적이고 비합법적인(illicit)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이러한 제재를 부여하는 글로벌 웨스트(The Global West)⁸⁾에 대립하겠다는 맥락에서 읽어내야 한다.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중 경제적 측면과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합의는 제 4, 5, 9, 10, 16조 등에서 드러난다.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제4조인데 일각에서 논의되는 ‘유사시 군사개입’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군사·기타 원조 제공 시 해상 수송 가능성 증가는 명백하다. 미국 백악관은 컨테이너 300개가 선박에 실려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러시아 두나이(Dunay)항으로 간 뒤 기차로 옮겨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80마일 떨어진 티호레츠크(Tikhoretsk)의 탄약고에 간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⁹⁾ 최근에도 나진항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줄지어 있고 대형 선박이 입항하여 접안한 모습이 포착되었다.¹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2023년 11월에서 2024년 4월 사이 북·러 간 컨테이너 1만개 이상의 이동이 포착되었는데 포탄일 경우 100만발이 넘는 것으로 예상했다.¹¹⁾

5) 위의 글; 피터 워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세종포커스』, 2024. 5. 22; 『연합뉴스』, 「안보리, 활동종료 대북 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안기구 비공식 협의」, 2024. 5. 23.

6)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7) 현승수, 「국제적 외교·군사 상황과 북한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북관계」, 『KDI북한경제리뷰』, 2023년 11월호, p.18.

8) Ikenberry, G. J., "Three Worlds: the West, East and South and the competition to shape glob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100(1), 2024, p.127.

9) *Washington Post*, "North Korea provided Russia with weapons, White House says," 2023. 10. 13.

10) 『연합뉴스』, 「VOA "북한 나진항에 대형 선박 입항...북러 정상회담 이후 처음"」, 2024. 7. 1.

11) 『연합뉴스』, 「나토총장, 북러밀착 경고...“포탄 주고 미사일·핵 기술 증진”」, 2024. 4. 26.

〈표 1〉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주요 내용과 해양·수산 분야 합의

조문	주요 내용	해양·수산 분야 합의
제4조	-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	- 원조 제공 시 해상 수송 가능성 증가
제5조	- 타방의 기타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에 불참	- 유엔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사회 제재 불참 - 선박 입출항·매매, 조업권·수산물 거래 등 포함
제9조	- 식량·에너지 안전·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안전·기후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 분야 도전과 위협에 공동 대처 상호협력	- 식량으로서의 수산물 수출입 협력 가능성 - 에너지 등 해상 수송 공급망 협력 가능성 증가
제10조	- 상호 무역량 증가를 위한 투자 장려	- 해운, 항만, 수산 분야 투자 가능성
제16조	- 치외법권적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한 일방적인 강제조치 적용을 반대 - 조치에 합세 혹은 지지를 삼가 - 조치를 적용하고 강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유포 제한	- 유엔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사회 제재 반대 및 거부, 협조 불응 가능성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주요 내용 발췌하여 저자 작성.

조약 제5조와 제16조는 북·러의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이나 조치에 대해 합세 또는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참하고 반대하며 관련된 정보 유포 제한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구는 유사한 조약에 늘 포함되는 상용구의 일환이지만 최근의 북·러 밀착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문구라도 그 함의를 간과하기 어렵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대, 불참, 거부, 협조 불응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의 블록화 경제에 본격 편입되어 대북제재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과 밀수는 증가하고 북·중·러 해운협력은 확대될 것이다.¹²⁾

조약 제9조와 제10조는 향후 북·러 간 협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보여준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식량으로서의 수산물, 에너지원인 석탄과 석유의 해상 수송 공급망이다. 또한 상호 무역량 증가와 관련하여 해상 무역에 필요한 항만 및 선박에 대한 투자도 예상한다. 2002년 이후 남북교역 및 중국과 육로 무역 증가로 인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활동이 감소했지만,¹³⁾ 앞으로는 무역량 증가와 선박활동이 비례할 가능성이 높다.

12) 이러한 우려에 관한 시나리오와 해양·수산 이슈 전망은 다음 보고서를 참고. 윤인주·채수란,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pp.94~101.

13) 윤인주, 「해운 및 선박 데이터로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6월호,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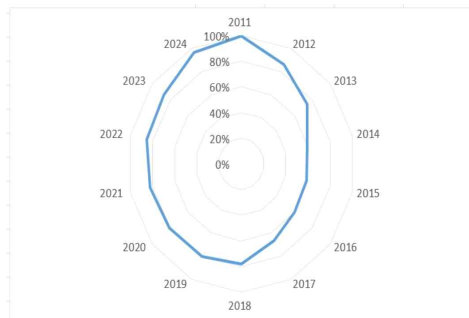
III. 해양·수산 분야 동향과 합의

1. 해운분야

북한 상선대 규모는 2010년대 들어 감소하다가 2015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오히려 회복되었다. 선박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총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DWT)로 보면 2011년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2024년 6월 현재 96%까지 회복했다. 선박의 종류(선종)별 증감을 보면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 다른 선종에 비해 증가한 비율이 높다. 컨테이너선은 적재된 화물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종류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벌크선은 석탄 등 광물 이동에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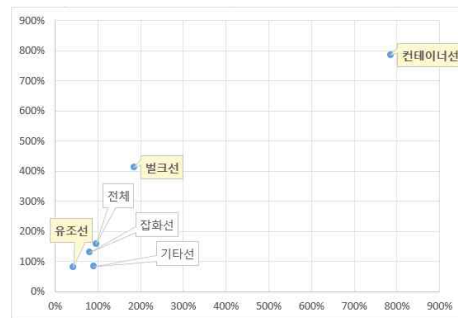
최근 러시아 회사가 북한 나진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러시아산 석탄 1만 5천톤을 운반할 선박 용선 공고문을 냈으나 입찰이 유찰되어 3차 공고문이 나온 바 있다.¹⁴⁾ 나진 - 하산 프로젝트에 따라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출하는 행위는 대북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북제재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019년과 2020년에도 선박 수배와 용선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¹⁵⁾ 선박 용선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대북제재 때문으로 해석된다.¹⁶⁾

[그림 1] 북한 상선대 증감 추이(2011~24)



주: 2011년을 100%로 설정한 총 재화중량톤수(DWT) 추이.
자료: UNCTADstat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선종별 증감 현황(2024)



주: 가로축은 2011년 대비, 세로축은 2016년 대비 증감.
자료: UNCTADstat 활용하여 저자 작성.

14) 『VOA』, 「라진항 석탄 선박 수배 공고문 3번째 배포... "선박 못 구하는 듯"」, 2024. 7. 3.

15) 위의 글.

16) 북한 항만에 기항한 선박은 미국 및 일본 항만에 180일 내, 한국 항만에 1년 내 기항 불가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하기 어려울수록 북한 국적 선박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무역에서 북한 선박 수요가 높아지면 무기 수송 의심을 받는 컨테이너선과 석탄 수출용 벌크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¹⁷⁾ 유조선 증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기 수출 시 그 대금을 식량과 석유로 지불받을 가능성 때문이다.¹⁸⁾

2. 수산분야

수산분야에서는 북·러 정상회담 4개월 전에 양측 대표단이 수산업분야 협조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을 볼 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2월 19~29일 북한 수산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수산업 분야 협조에 관한 조로공동위원회’ 31차 회의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 회의는 197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8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3년)를 제외하고 거의 매년 열렸다.¹⁹⁾

그동안 북한의 수산정책은 과학화·현대화를 통한 물질적 토대 강화, 양어·양식 확대, 수산자원 보호·증식 등 세 가지로 집결된다. 그런데 올해는 양어·양식의 다종화와 더불어 원양어로의 적극화와 바다 양어로 바뀌었다.²⁰⁾ 따라서 북·러 간 수산 협력이 강화된다면 이 새로운 세 가지 정책 목표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잡는 어업이 아닌 기르는 어업에서 품종과 어종을 다양화하고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등으로 원양어업을 확대하고 그동안 강조했던 내수면 어종이 아니라 해수면 어종을 기르는 것이다.

한편, 북·러 간 경제협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원물을 보내고 이를 가공할 노동자를 파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IV. 나가며

최근 일련의 북·러 밀착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 수립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제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에 북한을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나오게 했던 대북제재

17) 이재영, 「미중 공급망 경쟁 속 북중러 경제블록화 및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온라인시리즈』, CO23-24, 2023. 8. 25, p.3.

18) 현승수(2023), p.4.

19) 윤인주·진희권, 「2024년 북-러 정상회담과 수산 협력 전망」, 『KMI 북한해양수산리뷰』, 2024년 6월호, p.12.

20) 『조선중앙통신』(2023. 12. 31).

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북제재 체제에 결별을 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북한이 절대적으로 무역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할 때,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와 해양·수산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립무원과 적막강산보다는 함께 대항하는 존재가 있고 더 큰 협력을 끌어낼 여지가 있는 작은 기회라도 생겼다는 사실은 북한의 레토릭에 힘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참고문헌

- 윤인주, 「해운 및 선박 데이터로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6월호.
- 윤인주·진희권, 「2024년 북-러 정상회담과 수산 협력 전망」,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2024년 6월호.
- 윤인주·채수란,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해양수산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 이상근,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의 의미와 파급영향」, 『이슈브리프』, 제531호, 2024. 3. 29.
- 이재영, 「미중 공급망 경쟁 속 북중러 경제블록화 및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온라인시리즈』, CO23-24, 2023. 8. 25.
- 피터 워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세종포커스』, 2024. 5. 22.
- 현승수, 「국제적 외교·군사 상황과 북한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북관계」, 『KDI북한경제리뷰』, 2023년 11월호.
- _____, 「푸틴의 평양 방문과 러북 관계 전망」, 『온라인시리즈』, CO24-42, 2024. 6. 24.
- 『연합뉴스』, 「나토총장, 북러밀착 경고…"포탄 주고 미사일·핵 기술 증진"」, 2024. 4. 26.
- 『연합뉴스』, 「안보리, 활동종료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안기구 비공식 협의」, 2024. 5. 23.
- 『연합뉴스』, 「VOA "북한 나진항에 대형 선박 입항…북러 정상회담 이후 처음"」, 2024. 7. 1.
- 『VOA』, 「라진항 석탄 선박 수배 공고문 3번째 배포…"선박 못 구하는 듯"」, 2024. 7. 3.
- 『노동신문』,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년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 로씨야 연방 대통령 웨.뿌진」, 2024. 6. 18.
-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 Ikenberry, G. J., "Three Worlds: the West, East and South and the competition to shape glob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100(1), 2024, pp.121~138.
- Washington Post*, "North Korea provided Russia with weapons, White House says," 2023. 10. 13.

〈웹사이트〉

UNCTADstat(<https://unctadstat.unctad.org>, 접속일: 2024. 7. 4).